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율법에서 벗어난 증거

성경: 로마서 13장 8-10절

Tag:

8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롬13:8-10)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다.

‘사랑의 빛’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마치 빛처럼 나에게 지워져 있다는 뜻이다. 사랑의 빛은 어떻게 갚을까? 사랑함으로 갚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진 사람은 그 빛을 갚을 수 있는 오직 두가지 방법 외에는 이 빛을 갚을 길이 없다.

1. 하나님 사랑
2. 이웃 사랑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에서 벗어난 증거’다. 율법의 울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길 뿐이다.

흔히 나는 율법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냥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냥 이 율법에서 벗어나 저 율법에 걸리는 것일 뿐이다.

왜 사람은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간단하다. 율법에서 벗어나는 순간 저주와 직면하고(율법은 저주를 잠시 묶거나 유보시키는 힘이 있다), 죄악과 방탕과 어둠의 자식들에게 포로가 되기 때

문이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율법을 가르친다. 해서
는 안될 짓을 못하도록 한다. 그게 율법이다.

구약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곧 하
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율법의 장벽이 너무 무겁다.
너무 무겁고 너무 높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평생을 영적인 부담으로 여기며 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중간의 막힌 담인 율법을 허셨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막혀있던 율법의 담을 허셨다.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고, 율법을 지키는 척 하면서 자신의 죄를 씻었다.

때로는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되었다. 껍을 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거
리며 율법의 범망을 피하기 일수였고, 때로는 이걸 너무나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가, 어떤 조항은 스스로 짜낸 논리로 대체하거
도 한다. 세월이 그렇게 흘러 가면서 이제는 누가 봐도 엉뚱한 법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내가 싫어하는 짓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에 걸맞는 율법을 가져다 대고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비난하기까지 했
다. 요즘에도 교회에서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다. (이슬람권애
서는 심지어 살인도 일어난다.-그래서 신자율이 90%을 넘는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 하셨다.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
게 하리라 (마11:28)**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율법의 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뜻
이다. 사람마다 율법의 짐을 지고 있는데, 각종 종교가 지워주는 짐, 죄
책감의 짐, 저주의 짐, 마귀의 거짓말이 만드는 율법의 짐 등등 수 많
은 짐을 지고 살아간다.

예수님의 보혈이 이 모든 짐을 벗어버리게 하고 오직 ‘사랑의 빛’만

지게 하셨다.(20kg -> 1kg)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깨달음이 곧 빛이다.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11:30)

그래서 남겨진 짐이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처럼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하겠다고 다짐하는 짐이다. 그 상대가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그건 give and take),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리라.

이 빛을 다 갚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은 이제 상급을 쌓는 일일지 모른다.

왜 이 짐이 가벼울까? 이 짐이 버거우면 율법이고, 이 짐이 가벼우면 사랑이다. 이 짐이 속제가 되면 율법이고, 이 짐이 소망이 되면 사랑이다.

8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누군가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속았다고 느끼는가? 그럴 줄 몰랐다고 여기는가? 자고 일어 났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

요즘에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과거... 교회에서 여전도회 모임이 있을 때 간혹 간증하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여집사님들이 앞에 나와 평평 울면서 자기 간증을 한다. 그러면 동병상린이라고 경청하는 모든 권사님 집사님들이 함께 통곡한다. 그렇게 서러움을 달래고 다시 가정에 돌아가 그토록 성토하던 남편을 섬기며 사랑하며 자녀를 키우며 살아간다. 이렇게 어찌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갚는 것이다. (물론 꼭 이래야 한다면 그것도 율법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런 것이 진짜 여성주의다. 오직 사랑으로 저주를 끊는다. 저주에 대한 해답은 사랑밖에 없다. 사랑은 해답일 뿐만 아니라 소망이고, 상급이다. 반드시 복된 날이 다가온다.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9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롬13:8-10)

사랑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게 되니, 그거야 말로 진정한 율법의 완성이 아닌가? 율법정신이 무엇인가?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것 아닌가?

바울도 비슷한 결론을 기록하고 있다.

14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갈5:14)

율법의 세 가지 종류 중 속죄에 관한 율법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고, 정결법은 경건 생활로 완성되고, 나머지 한가지 율법은 자기 자신을 둘러싼 관계의 완성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속제가 되고, 사랑의 빛을 갠지면서 완성한다.

이 중에 정결법의 완성에 속하는 경건 생활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되지 않으니 좋다. 다만, 경건 생활을 정죄용으로 사용하는 오용 사례가 자주 발생하니 주의하도록 한다.

집사가 되가지고 술담배도 못 끊고...

누군들 술 담배 끊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다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깝게 여기고 용기를 내도록 도울 뿐이지.

20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고전9:20)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삼았다.

멸망에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 외에 다른 더 좋은 사랑이 있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었다. 동질감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다.

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 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5:16)

육체의 욕심이란 무엇인가? 정욕인가? 그것 뿐인가?

-탐심도 육체의 욕심이다.

-자존심도 육체의 욕심이다. 자만심은 마약 중독과 비슷하다. 순간 순
간 자만하지 않으면 살 맛이 나지 않는 사람은 그 자만심을 채우기 위
해서 별 짓을 다한다.

-갑질도 일종의 육체의 욕심이다. 자만심과도 연결되는 행동인데, 예
를 들어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무시하는 것 등이다. (요즘에는 선생에게
갑질하는 것이 이슈.)

-돈 자랑 하는 것도 육체의 욕심이다.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
하니, 돈으로 뭔가를 다스리려 한다.

18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 니하리라 (갈5:18)

-만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면, 그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 율법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된다.

-율법 위에 있는 것이 곧 사랑이다.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사랑도 계산적으로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안해? give and take는 과연 사랑인가?

-사랑하니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일 뿐이다.

-진정한 피아니스트의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춤을 추지만, 결코 악보

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울법에서 벗어난 증거로서의 사랑. 우리 삶의 소망이자 다짐.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